

목포시, 전국 유일 '문학마을'로 재탄생

총 144억6000만원 투입
김우진, 박화성 등 다수 배출
8인 작가 전시관 탄생 예정



목포시가 전국 유일의 '문학마을'로 새롭게 태어난다.

/목포시

목포 원도심이 근현대 문학의 숨결을 간직한 전국 유일의 '문학마을'로 새롭게 태어난다.

목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남부권광역관광개발 문학치유 관광루트 연계 명소화 사업인 '목포문학마을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한국 근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배출한 문학의 고장으로서, 문학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총 144억 6000만 원이 투입되며, 시는 그동안 문학마을 조성과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부지 매입 등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해 2027년 완료할 예정이다.

문학마을이 조성될 목원동 일원은 목포 원도심의 심장이자 마을 자체가 하나의 지붕 없는 문학관이다. 김우

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한국 문학을 빛낸 작가들이 태어나거나 창작 활동을 펼쳤던 곳으로, 시는 이 지역을 문학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문학적 가치와 지역 고유의 역사성을 동시에 살릴 계획이다.

문학마을 조성사업은 ▲골목길 문학전시관 조성 ▲문학마을 디자인 ▲문학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으로 추진된다.

현재 갯바위문화타운에 있는 목포

문학관이 기존의 김우진(극작가), 박화성(소설가), 차범석(극작가), 김현(문학평론가)의 4인 복합문학관에서 개인별 문학전시관으로 탈바꿈해 목원동으로 옮겨온다. 더불어 김지하(시인), 최하림(시인), 천승세(소설가), 황현산(문학평론가) 등 목포 출신 작가들의 전시관도 추가로 조성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문학마을 일대에 총 8인의 작가 전시관이 탄생한다.

이는 한국문학사의 큰 획을 그은

작가를 다수 배출한 목포이기에 가능한 전국 최초의 유일한 사례로, 문학의 도시로서 목포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불종대, 남교소극장, 북교동 성당까지 이어지는 주요 길목을 작가 이름을 딴 문학골목으로 조성한다. 마을 곳곳에는 문학을 테마로 한 포토존과 야외 갤러리가 마련되며, 문학디자인 거리, 문학공원, 문학마을센터와 홍보관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문학마을 플랫폼 구축을 통해 방문객을 위한 관광안내소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문학마을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목포의 풍부한 문학적 자산을 활용해 전국 최초의 문학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문학의 도시 목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진군은 동해중부선 철도개통에 발맞춰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를 지원하고자 지난 10일부터 '관광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울진군 '관광택시'로 관광객 편의 지원

울진군은 동해중부선 철도개통에 발맞춰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를 지원하고자 지난 10일부터 '관광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관광택시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숙련된 택시 기사가 주요 관광지를 안내하며 이동을 지원하는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로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관광객들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로 녹내장 질환 알린다

세계 녹내장 주간을 맞아 부산의 대표 상징물인 광안대교가 그린 색상으로 변신한다.

부산시설공단은 세계 녹내장 주간(World Glaucoma Week)을 맞아 3월 12일 오후 8시 40분부터 20분간 광안대교 경관 조명 전체를 녹색 점등으로 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녹내장학회는 2025년 세계 녹내장 주간을 기념해 국민들에게 녹내장 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반구천의 암각화' 탐방로 조성

울산시는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발맞춰 문화유산과 경관 명소를 연결하는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와 두동면 천전리 등 반구천 일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17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 사업 내용은 탐방로 정비와 주차장 설치, 습지 경관 개선, 휴게공간 조성, 옛길 복원 및 정비 등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해남군 내일 '해남정원도시 포럼' 열려

해남군이 정원도시 비전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3일 해남정원도시 포럼을 개최한다.

군은 기후위기와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원도시 조성을 통한 살기 좋고 아름다운 '농어촌수도, 해남' 전략의 밑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이번 포럼은 '정원도시, 해남·땅·끝에서 피어나다'를 주제로 산림청 및 전라남도, 정원 전문가 등의 강의 및 토론을 통하여 정원도시 해남의 정책 방향성과 정원문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대구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대구지역 혁신 프로젝트 등 3개 사업에 총 43억 투입

대구시가 고용노동부의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4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3개 사업은 '대구지역 혁신 프로젝트', '대구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대구 자동차부품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등이다.

시비와 국비 34억원 등 모두 43억원이 투입된다.

'대구지역 혁신 프로젝트'는 모터소부장 분야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8억원 규모로 취업역량 강화교육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구직자들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반도체 및 자동차 부품 산업 분야 청년

인력유입 및 고용유지 제고를 위해 17억원 규모로 신규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장려금 및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또 '대구 자동차부품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은 지난해 4월에 체결된 고용노동부와 현대·기아차 자동차산업 상생협약에 따라 지역 자동차부품업 2·3차 협력사 임금격차 완화 및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8억원 규모의 고용장려금을 신규 취업자와 채용기업에 지원한다.

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수행기관인 대구상공회의소를 통해 공모로 진행되며, 올해는 700여 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국비 30억원을 확보해 5대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등 총 38억 원을 지원해 561명 고용창출 성과를 거뒀고, 132개 기업을 지원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전남도, 올해 어선어업 분야에 466억 투입

어업 기반시설 등 17개 사업 추진

전라남도는 올해 어선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66억원을 들여 어업 기반시설, 어선원·어선재해보험, 친환경 어업 환경개선 등 17개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어업기반시설 조성에는 203억원을 투입해 인양기와 부잔교, 어업인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인양기는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소형어선을 육상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장비로, 어업인의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잔교는 어선이 접안할 때 어업인의 승하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어업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4억원을 지원한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조업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

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 3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어선 재해보험은 어선이 해상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히 복구하도록 지원하며, 어업인 안전보험을 통해 어선·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어업을 위한 어업환경 개선 사업은 179억원이다. 어업경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를 보급하며, 어구 보증금제 실시로 사용이 끝난 폐어구의 회수율을 높이고, 해파리, 불가사리 등 유해생물을 구제해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연근해어선 감척을 추진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고환율 피해기업에 100억 지원

업체당 최고 1억 한도

부산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대외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피해를 본 수입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고환율 피해 기업 지원' 특별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수입 실적 증명서'상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확인 증명이 가능한 수입 직접 피해 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로 5년간 이자 차액 2%를 지원한다.

당기 매출액의 2분의 1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최대

보증 한도를 산출하고, 대표자의 개인 신용 평점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등 저신용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기업에 가뭄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체, 세금 체납, 폐업, 소유 부동산 관리 침체, 신용 회복, 개인 회생, 파산 및 신용 관리 정보 등록된 기업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자금이 소진되거나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며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안동시·예천군 선정

올해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각각 건립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안동시와 예천군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안동시에는 풍산읍 경북바이오산업단지 일원, 예천군에는 호명읍 도청신도시 2단계 부지에 건립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 사업체 등과 지원 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비수도권의 영세한 창업·중소벤처 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



안동_지식산업센터.

을 제공한다.

신규 건립 지역으로 선정된 안동시와 예천군은 올해 각각 설계비 10억원, 5억원씩을 우선 지원받게 되며, 5년간 국비 271억원(안동시 160억원, 예천군 111억원)을 단계적으로 교부받는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